



청호반새

글·사진 李正雨
(鳥類研究家)

學名 *Halcyon pileata*
英名 Black-capped Kingfisher

지난 4월 말일날.

남서 해양상에 외롭게 떠있는 등대섬 칠발도의 아침은 유난히 바다안개가 짙게 깔려 있었다.

그 전날은 한 무리의 쪽독새와 흰눈섭붉은배지빠귀가 월동지인 동남아시아에서 여름을 나기 위한 북상길에 잠시 기착했었는데 밤새워 날아왔는지 이날 아침에는 8마리의 청호반새가 도착해 있었다.

해발 105m의 칠발도는 사방이 깎아지른 바위 너설로 되어 있고 풍화와 해식의 영향으로 기암괴석의 해안이 되어 사람 출입이 불가능하며, 바위사이와 상층부에 밀사초군락이 있는데 이곳에는 바다쇠오리, 습새, 바다제비가 땅굴을 파고 번식하는 해양조류 번식지이다.

또 이곳은 갖가지 여름철새들이 봄철 이동기에 들리는 중간 기착지이기도 하다.

청호반새는 한반도의 대표적인 여름철새로 산간 계류나 강변, 저수지에서 생활하는 물새로 도처에서 번식하는 美鳥중의 美鳥이므로 야생조를 이해하는 이들은 가장 아름다운 새로 청호반새를 손꼽기도 한다.

개구리나 물고기를 주식으로 하는 습성때문에

칠발도에 도착해서도 해안의 물가 바위를 전전하며 쉬고 있었는데 바닷가에서 먹이 구하는 일이 용이롭지 않아서 인지 오후 서너지 쯤에는 내륙 쪽으로 모두 날아가 버렸다.

번식은 전국의 야산의 사태난 황토벼랑에 1미터 쯤 깊은 땅굴을 파고 하는데 한배에 6개 정도의 백색 알을 낳는다.

매년 같은 구멍을 이용하기도 하고 또 여러개가 이웃해 있는 경우도 있는데 황토벼랑을 이용하는 것은 황토 땅굴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물총새와는 생태가 비슷하고 같은 행동을 하는데 분류학상으로 같은 科의 사촌지간이다.

적도권의 새들 같이 화려한 색상의 열대성 조류인 것은 사실이나, 한국에서 번식하므로 우리나라가 고향이다.

시골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어른들 중 장난 삼아 청호반새의 둥지를 털어 본 경험이 있는 이들에게는 추억의 새가 되겠지만 날로 심각해지는 수질오염으로 매년 숫자가 줄어들어 환경을 염려하는 이들에게도 또 한번 추억의 새가 되지 않을까 걱정스러운 종이다.